

山 上

거리가 바둑판처럼 보이고,
江물이 배암이 색기처럼 기는
山麓에 까지 왔다.
아직쫓은 사람들이
바둑돌 처럼 벌여있으리라.

한나절의 太陽이
함석집웅에만 빛이고,
굼벵이 거름을 하든 汽車가
停車場에 섰다가 검은내를 吐하고
또, 거름밭을 탄다.

텐트같은 하늘이 문혀져
이거리를 덮을까 궁금하면서
좀더 높은데로 올라가고 싶다.

산상

거리가 바둑판처럼 보이고,
강물이 배암이 새끼처럼 기는
산 위에까지 왔다.
아직쫓은 사람들이
바둑돌처럼 벌여 있으리라.

한나절의 태양이
함석 지붕에만 비치고,
굼벵이 걸음을 하던 기차가
정거장에 섰다가 검은 내를 토하고
또, 걸음밭을 탄다.

텐트 같은 하늘이 무너져
이 거리를 덮을까 궁금하면서
좀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다.